| 현불 논단 |

삼학 중 '戒'가 우선인 까닭은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삼학, 불교 수행 덕목으로 언급
팔정도와 연결돼 실천수행 가능
계 · 정 · 혜로 수행하면 깨달음 얻어

한국불교는 계 · 정 · 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이 이뤄지고 있는가

조계종 기본교육서 계율학 배우지만 현재 한국불교엔 '계' 결여돼 있어 율장에 의한 청정승가가 바로 서길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은 초기 · 부파 · 대승불교 문헌들 및 율장 등에서 하나의 수행의 덕목으로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붓다는 삼학에 대해서 초기불전인 〈대반열반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실로 세존께서는 왕사성 기자굴산에 계셨다. 그곳에서 비구들에게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법화만을 설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계이다. 이와 같은 것이 정이다. 이와 같은 것이 혜이다. 계를 원만히 수행한 정은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정을 원만히 수행한 혜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혜를 원만히 수행한 마음은 모든 번뇌로부터, 즉 욕루(欲漏) · 유루(有漏) · 견루(見漏) · 무명루(無明漏)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

삼학의 계 · 정 · 혜를 전후의 순서에 의해 점진적(漸進的)이고 직선적(直線的)으로 수행하게 되면 번뇌를 소멸하게 되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삼학의 수행덕목은 불교에만 있고 외도(外道)들에게는 없음을 대승 유식학파의 논서인 〈유가론〉에서는 "이 삼학은 성스러운 가르침(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다. 삼학은 외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에만 있는 삼학을 수행자들은 하나의 바른 수행방법으로서 꾸준히 정진할 것을 〈잡아함경〉 중의 〈학경(學經)〉에서 붓다는 "삼학을 구족하면, 그것은 비구의 정행(正行)이다. 따라서 계 · 정 · 혜의 3가지 법을 꾸준히 닦아야한다"고 권한다.

붓다는 삼학의 계 · 정 · 혜를 설함과 함께 초전법륜에서 설하신 팔정도 수행과 접목하여 '계'는 정어 · 정업 · 정명, '정'은 · 정념 · 정정, 그리고 혜는 정견 · 정사유 · 정정진의 실천수행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별 불전들에서는 계 · 정 · 혜의 삼학에 대해서 의의, 순서, 수행과정, 수행결과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불전들의 내용과 같이 작금의 한국불교와 승가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붓다가 설한 계 · 정 · 혜의 삼학 순서에 의해 교학 지도와 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리고 '계 · 정 · 혜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다.

붓다가 설한 시간 중에서 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 미래 · 현재, 즉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 있다'는 시간에 의하면 앞의 의문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2강좌에 걸쳐 계율학이 강의되고, 그리고 9개의 율원(비구 7, 비구니 2)에서 붓다의 계율정신을 계승하여 율사로서 수행과 청정승가를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와 승가의 현재 시간 중에는 계 · 정 · 혜 삼학 중에서 첫 번째인 '계'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신뢰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발표된 불자 수 761만 명이 간접적으로 나마 답을 대신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은 불교계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와 같은 다사다난이 자량의 힘이 되어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취임과 함께 계 · 정 · 혜 삼학의 순서에 의한 교학 연찬과 수행, 그리고 율장과 청규에 의한 청정승가와 교단이 여법하게 여일하기를 불교학자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社 說

청년문화공간 건립 나서자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다.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에 사찰은 더더욱 없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화마당에서 일선포교현장서 활동하는 스님과 재가자,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불교는 청년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기실 불교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부분 1회성 행사에 그치고, 공동체 구성에는 무관심했다.

이번 대화마당을 통해 드러난 불교계의 미래세대 포교 과제는 '불교공간 건립'이다. 단순히 사찰 어느 한 구석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대다수 모이는 도심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에 찾아오기만을 바라지 않고, 눈길만 주고 지나쳐도 좋은 청년들 사이의 공간 말이다.

심리학에 '에펠탑 효과'라는 표현이 있다. '단순노출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요약하면 "자주 보면 정 들고, 정 들면 좋아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물론 과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불교계는 노출에 취약하다.

청년들이 말한다. 핫 플레이스에 교회 · 성당은 있지만 사찰은 없다고. 이웃 종교에서는 대학로 · 왕십리 등에 문화회관을 짓고,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작의 기회, 여가의 기회로 이어지며 각광받는다.

불교계는 어떠한가. 일반사찰은 불사가 먼저이고, 종단들이 앞장서 신도시에 짓는 건물도 포교당 성격이 짙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다. 청년들은 모일수록 시너지가 크다. 하지만 모일 공간조차 없으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사통합관리단 출범 박차를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지 159일째를 맞았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와 우리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였다.

하지만 지정된 지 5개월이 넘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무엇보다 등재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맡게 될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이 지지부진하다.

11월 27일 조계종이 그랜드힐튼호텔서 개최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에서는 이 필요성이 집중 제기된 자리였다.

각 지자체가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조정할 통합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는 이 유산이 단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보다 많은 세계인들과 후손들이 그 가치를 알고, 함께 향유하는데 의미가 있다.

통합관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재청 등 각 분야 전문기관과 불교계 사찰과 신도회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산사에서 생활하는 사찰의 스님들과 산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산사에 대한 통합관리단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자칼럼

비지정 문화재 도난 예방 관심을

신성민 취재부 부장

지난 2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 회원들과 도쿄 일원 박물관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탐방 기간 중 필자를 당황하게 만든 곳은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네즈 미술관이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잘 정돈된 정원들 들어서니 누가 봐도 한국에서 건너왔을 석탑, 부도, 석등, 석주, 문인석, 석조 동자상들이 정원 장식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레를 산책하는 데만 20여 분이 걸리는 큼직한 정원에 한국에서 건너온 성보들은 제대로 서 있는 것들이 없었다. 본래 자리에서 해체해서 가져와 복원했으니 조합이 맞지 않았고, 접합부 사이가 들뜬 것들이 다수였다.

11월 27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2000년 10월 도난당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1701년 제작)와 2013년 1월 도난당한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조선시대) 등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들 성보들은 개인 자택 등에 은닉돼 있다가 단속반의 지속적 수사 끝에 회수된 것이다.

찾은 성보 중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성의 사진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일본 네즈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잣집 정원의 조형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상천리 어느 사지에 있던 이 불상은 원래 불두가 없었다. 이를 은닉했던 소유주는 자신의 임의대로 불두를 만들어 훼손시켰다. 그래서 불두와 아래 여래상은 색도 다르고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복원 불두와 기존 여래상의 암질이 같은 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회수된 불상에 대해 "옷자락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여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래상이 도난을 당한 시기는 2013년이다. 1960~80년대 문화재 도난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던 시기에 도난된 것이 아니라 문화재도난백서가 발간되고 도난DB가 활용되는 시대다.

그럼에도 폐사지에 덩그러이 놓여있던 여래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 정부가 폐사지 등에 소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준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만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 · 도지정 231점, 비지정 1만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 · 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 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조사를 강화해 급증하는 도난을 예방한다.

또한 다수의 문화재 장물 유통은, 선의취득 조항을 일부 거래자가 악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선의취득 배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교 성보가 추악한 탐미주의에 빠진 자본가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지 않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